

제네바 시위

유발 야나이 Youval Yanai

9월 28일 화요일, 예루살렘 공정 협회 the Jerusalem Institute of Justice와 스위스의 유대인 단체들은 힘을 합하여 제네바의 UN과 적십자 본부 앞에서 진행된 한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적십자가 길라드 샬리트를 위한 방문권을 하마스와 협상하면서 적용한 이중 잣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년 이상 길라드는 포로로 잡혀 격리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테러 조장 혐의로 이스라엘 경찰이 지명 수배 중인 하마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적십자 사무실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쇼핑도 하고, 사업도 하며 각국의 방문자들과도 만납니다.

집회에 모인 이들 중에는 샬리트의 가족들과 전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종려 가지(룰라브 lulav)를 들고 온 제네바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방문자들 그리고 현지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언론사들과 이스라엘의 10번 채널이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요엘 Yoel 샬리트(길라드의 형제)는 눈물에 목이 메어 연설을 했습니다. 뒤이어 예루살렘 공정 협회의 법률 고문인 칼렘 마이어스도 연설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제네바의 하바드 Chabad 랍비가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 14:16의 예언적 형상을 보았습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제네바였을 뿐이었습니다. 게이트웨이즈 비욘드 Gateways Beyond의 레베카 Rebekah N.가 히브리어로 하티크바 HaTikvah를 부른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국가가 제네바의 UN 본부 앞에서 불려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이 무리 위에 내려오셨고 분위기는 경건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반더폴 가정

세계 있어 믿음의 영웅들 중 한 명은 다비드 반더폴 David Vanderpool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재난 구호 이동 의료팀 Mobile Medical Disaster Relief”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섬겨 왔으며 최근에는 아이티 지진 피해자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들은 “피플 지 독자 선정 영웅 the People Magazine Reader Hero Award”이라는 상에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상을 받는다면, 1만 불의 상금이 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내어 바로 [여기](#)를 클릭하여 그들이 상을 타도록 투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반더폴과 그의 단체 MMDR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회개의 일곱 가지 열매

아세르 인트레이터

갈 5:22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삶 가운데서 성령의 영향력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입니다.

또한 예수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에는 거듭남,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사랑의 체험, 영생의 확신, 복음 증거 등이 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

이와 더불어 회개로부터 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고후 7장에 근거해 “회개의 일곱 열매”라고 부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후 7:11).”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 단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행 2:38). 각 단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슷하지만 본질상 다릅니다.

회개의 열매들은 모두 인간 영혼의 적극적인 반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렬하고 정력적인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의도를 요구합니다. 회개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 사이에 균형을 형성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반영하고,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많이 반영합니다. 우리가 둘 다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에 대한 언약적 접근

아세르 인트레이터

올해에는 이스라엘 내의 목회자들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넘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상처 입고 연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굳세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에 대한 언약적 접근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팀워크 –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간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도자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이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 우리는 다른 지도자들과 팀을 이뤄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이들 혹은 주님 안에서 더 어린 이들을 훈련하여 장래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절제하는 것뿐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이들에게 인내와 끈기로 투자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열매를 즉시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치기 시작할 때 전진할 준비가 된 이들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 – 이것은 겸손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교정을 받고자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주변인들에게 항상 옳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고통스러운 실수로 이어질 것이요 불필요한 타격과 탈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유연한 것이 완고한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팀 안에서 사역하는 것, 다른 이들을 훈련하는 것,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세네 번씩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허나 멀리 보면, 우리는 사역을 공유하고 배가시킬 수 있는, 재생산되는 친구들의 무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